



경진원, 시제품 제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도내 창업기업의 사업과 역량과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진원은 지난 11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스타트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제품 제작 역량 향상과 투자유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한국지역경제진흥원의 김익태 수석이 '창업기업의 사업화 전략과 성장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 두 번째 강연에서는 제로부원파트너스의 최보라 부대표가 '시제품 제작기업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창업기업 투자 트렌드와 투자유치 전략, 성장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대산면, 행복의 빵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

남원시 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빵 250여 개를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빵 나눔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함께하면 좋은 세상' 5회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북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소속 사내봉사단이 참여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남원시 이백면 허브앤베이커리 제빵소에서 빵을 만들고 포장하였으며, 총 250개의 빵을 준비,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타받은 빵을 운교마을 등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16일 군청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오는 16일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분기별로 꾸준히 헌혈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1~2분기 2회에 걸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보건소의원 결핵실(☎063-640-3175)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대-퍼듀대,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JPRI' 가동

JPRI 국제 컨퍼런스 개최... 피지컬 시가미 미래산업 연구협력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가 공동 설립한 전북대-퍼듀대 공동연구소(JBNU-Purdue Research Institute, JPRI)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의 단을 올렸다. 양 대학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Physical AI·미래모빌리티·첨단국방 등 미래 전략산업 전 분야의 연구 비전을 공유하며 한미 연구협력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6월 12일 전북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미국 퍼듀대학교와 공동 설립한 JPRI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 대학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JPRI의 연구 비전을 대내외에 소개하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과 퍼듀대학교 디미트리오스 페롤리스(Dimitrios Peroulis) 수석부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 학생,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JPRI 국경수 연구소장과 퍼듀대학교 Martin Jun 교수가 JPRI 설립 배경과 운영 방향을 소개한 데 이어, 양오봉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전북대의 AI 기반 교육·연구 혁신 전략인 'JBNU on AI'를 발표했다. 페롤리스 수석부총장은 퍼듀대학교의 글로벌 연구협력 전략과 JPRI의 발전 비전을 소개하며 양 대학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둘러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교육·연구 혁신 모델에 대해 퍼듀대학교 측의 자문과 컨설팅이 함께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는 교육혁신 전략,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 AI 거점대



학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Physical AI, 자율시스템, 첨단제조,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에너지, 국방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주제로 양 대학 연구진의 발표가 이어졌다. 퍼듀대학교에서는 Insook Hwang 교수(항공우주 분야 사이버물리시스템), Michael Sealy 교수(첨단 제조기술 기반 기능성 소재), Amy Marconnet 교수(차세대 전자소재 열공학 기술)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전북대에서는 김순태 교수(Physical AI 선도모델 개발), 조형기 교수(Spatial AI 및 로보틱스), 장일준 교수(AI 기반 미래 국방산업 발전 전략)가 연구 성과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DH그룹 배종식 부사장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양 대학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제공동연구 과제 발굴, 연구자 교류, 대학원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Physical AI 기반 미래모빌리티·스마트에너지·첨단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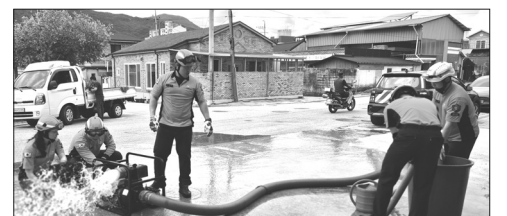


정읍 내장상동, 공유생장고기부자예우 현황판 설치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0일 센터 1층에 공유생장고 기부자들의 사진과 내역을 담은 현황판을 설치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현황판에는 '나눔을 실천해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구호(슬로건)가 적혀 있다. 이곳에 정기 후원자와 일시 후원자의 얼굴 사진, 구체적인 후원 내역을 나란히 게시했다. 공유생장고 운영을 위해 현금과 생필품, 반찬 등을 아낌없이 내어준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현황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기부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담겼다.

실제로 내장상동 공유생장고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복지망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는 2941명이다. 그동안 총 21개 기관과 개인이 동참한 후원금과 물품은 1588만원 상당의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소방서,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호우 연벽 대비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 장비 일제 점검 및 100% 가동 상태 유지 △인명피해 및 침수 우려 지역 순찰 강화 △피수자 및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 확보 △기상특보 발효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풍수해 발생 시에는 단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긴급구조조치단을 운영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또한, 피해 복구 단계서는 군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구를 돕기 위해 펌프차 등을 동원한 급·배수 지원, 위험 요소 제거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 투입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파난과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비상구·복도·계단·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고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차단·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남원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내용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신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898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8157
	군산지사 010-8329-68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보건소, 9월까지 267곳 결핵 검진 이행 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지역사회 결핵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267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결핵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집단시설 안에서 결핵이 퍼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 대책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주기에 맞춰 잠복 결핵 감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는 현장 기관이 겪을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이행 점검을 자율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